

인공언어학연구회 저 2012년 3월 4일 초판

어법론

인공언어의 보이지 않는 심장

●에스페란토와 어법

인공언어에서 가장 간과하기 쉽고 중요한 것은 어법이다.

에스페란토는 서양어의 어법을 답습하였다.

동양인 에스페란티스토는 한결같이 서양어에 정통한 식자이다. 따라서 서양어의 어법에 맞추거나 모국의 어법에 맞추어서 에스페란토를 사용한다.

예술언어는 문화를 구축하고 국제보조어는 문화를 표백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에 대해서는 구축하든 표백하든 전혀 상관없다. 문화 제작으로부터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다. 오히려 국제보조어에 대해서는 표백, 즉 사상(捨象)해야 한다고조차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법은 그럴 수 없다. 어느 경우든 오리지널의 어법 제작을 내던질 수는 없다.

아프리오리이든 아포스테리오리이든 오리지널의 어법을 갖지 않으면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간에서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에스페란토는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았다. 서양인과 서양에 경도된 동양인에 의해 키워져 왔기 때문이다.

현재 에스페란토의 어법은 사실상 막연한 인도유럽어족 언어군의 어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아포스테리오리의 어법이다.

자멘호프가 제대로 어법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이 에스페란토의 결점이다.

2012년 현재에서조차 미국의 인공언어 관련 게시판에 고개를 내밀면 동양인이 오는 일이 드물다며 신기해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이 보급되어도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간극은 크다.

그렇다면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에스페란토가 서양과 동양의 어법을 합해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기보다 시대적으로 생각해서 애당초 자멘호프에게는 무리이다.

●아르카와 어법

한편 아르카는 서양에서 동양까지 폭넓은 모국어 화자에 의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어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20세기 후반에 있어서 서양과 동양이 접촉하자 대개는 동양인이 서양인에게 맞춰 가는 것이 현실이었다.

서양 쪽이 한결같이 경제력과 군사력과 과학력이 있었으며, 동양은 서양에 대한 동경을 적잖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당시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하는 비율과 그 반대의 비율을 비교해도 이것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아르카는 1991년이라는 이른 단계에서부터 서양이 주도하는 방식에 물들지 않았다.

가장 원시적인 아르카는 꽃말을 이용한 아프리오리 암호이며, 다음으로 원시적인 아르카는 이것 또한 아프리오리의 암호였다.

그 후 1991년에 생긴 아르카는 일본어와 핀란드어의 피진으로부터 생긴 언어였다. 어느 쪽도 인도유럽어족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조금 특수했다.

그 후 서양인 중심이기는 하나 모국어가 다른 구성원이 유입되었다. 분명히 서양인의 비율은 많았으나 그 집단의 대표격 중 한 사람이었던 내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어권의 힘이 강했다.

즉 아르카는 서양어, 특히 인도유럽어족의 어법에 침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법 문제 : 문제를 알아챈 언어가와 알아채지 못한 언어가

그런데 90년대 중반쯤 되어 구성원이 급증하자 어법이 문제가 되었다.

워낙 다양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집단이기 때문에 같은 아르카를 사용해서 말하더라도 어법의 상이로 인해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공원’은 어떤 언어 화자에게는 ‘넓은’ 것이며, 어떤 언어 화자에게는 ‘큰’ 것이다.

마찬가지로 ‘강’ 은 어떤 언어 화자에게는 ‘폭넓은’ 것이며, 어떤 언어 화자에게는 ‘큰’ 것이다.

에스페란토에서는 영불의 large 나 영어의 vast 를 참고하여 ‘넓은 공원’ 을 larĝa parko 나 vasta parko 등으로 말한다(vasta parko 가 더 일반적). 그대로 인도유럽어족의 어법을 답습하고 있다.

영어에도 프랑스어에도 일본어의 ‘넓다’ 에 딱 들어맞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스페란토는 역시 서양어의 일종이니만큼 일본어의 ‘넓다’ 에 딱 들어맞는 단어를 갖지 않는다.

만약 일본인이 에스페란토를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서양어권의 어법감에 맞추거나 일본어식의 발상이 틀린 콜로케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보조어로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하여간 사용자들끼리 어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정확히 되지 않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제보조어로서는 어법이 특정 자연언어에 의존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 입장에서 불공평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언어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국제보조어에서는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법 문제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특정 인공언어를 사용한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언어를 만들기만 하고 사용 실험을 다양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몇 년에 걸쳐 제대로 실시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법 문제의 존재 자체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에스페란토의 경우 서양인은 서양어의 어법을, 동양인은 서양어를 이미 할 수 있는 식자가 많았기 때문에 서양어의 어법을 사용한다. 서양인과 동양인 사용자의 관계가 대등하게 되어 있지 않다.

결국 동양인이 서양인에게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12 년이 되어서도 미국의 인공언어 게시판에서 일본인을 별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인공언어계의 실정이니 말이다.

생각건대 2012 년 현재 지구상에서 서로 다른 다수의 모국어 화자가 서양에 편중된 어법 없이 인공언어를 사용한 예는 아르카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온갖 인공언어가 어법에 대해 너무나도 고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일본인의 인공언어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도 빈약한 탓에 의분으로 과거의 신생인공언어론을 만들었을 때와 비슷한 마음이 있다.

터놓고 말하면 “니들 어법 너무 우습게 본다. 절대로 그 언어 안 사용해 봤지? 외국인들이랑 서로 써 보다 보면 무조건 어법에 눈이 가게 돼 있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솔직히 본고의 제목을 ‘어법론’ 이 아니라 ‘어법 물로 보나’ 로 하고 싶었을 정도로 분개한다.

아르카의 경우 90 년대 중반 무렵에는 이미 어법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사용자에 따라 콜로케이션이 전혀 다른 일 따위는 일상다반사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우리 일본인은 ‘마지막 일요일’ 이라고 하면 인생 최후의 일요일인줄로 착각하지만 이는 단순히 last sunday 의 직역이다.

last 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라는 뜻도 있어서 지난 주라는 의미로 이어진다.

상대방이 ‘지난 주 일요일’ 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해도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일요일’ 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아르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발생했다. 솔직히 당시의 대화는 실제로는 몇 할 정도밖에 제대로 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다. 아르카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이 일본인 소년과 핀란드에서 자란 소녀이며, 서브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 서양인이었기 때문에 서양어의 어법이 우세해지는 일이 없었다. 우세한 어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통된 어법이 없고, 그 때문에 어법이 서로 통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파워 밸런스가 편중되어 있는 에스페란토에서는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법 문제는 버려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기 바란다. 국제보조어라면 오히려 특정 언어의 어법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술언어인 아르카가 국제보조어보다 어법에 대해 탄탄히 고찰되어 있고 훨씬 국제보조어처럼 생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어법 문제의 구체적 예

우리가 아르카를 운용하면서 어법의 일치를 보지 않은 탓에 의사소통에 고생한 예는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그중 일부를 구체적인 예로 든다.

이들 콜로케이션에 관해서 당신의 언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얼마나 에스페란토가 생각 없이 서양에 편중된 어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페이지를 넘기다의 ‘넘기다’ 는 뭐라고 하는가. 그럼 반대로 페이지를 되돌릴 경우에는 뭐라고 하는가.

아르카에서는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종이를 뒤집는 동작이므로 페이지를 뒤집는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페이지를 되돌아갈 경우에는 페이지를 앞집는다는 식의 표현을 한다. ‘종이를 뒤집는다’ 라는 물리적인 동작을 그대로 콜로케이션에 사용하기 때문에 ‘넘기다’ 에 비해서 어느 나라 출신 사람이나 이해하기 쉽다.

우산을 쓰다의 ‘쓰다’ 는 뭐라고 하는가. 아르카에서는 ‘열다’ 내지 ‘기능을 발휘하다’ 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물리적인 동작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만인이 이해하기 쉽다.

일본어에서는 우산은 ‘差す’ 지만 중국어에서는 ‘打’ 한다. 한편 영어에서는 open 하고 프랑스어에서는 ouvrir 하기 때문에 둘 다 ‘열다’ 이다. 그렇다면 에스페란토는 역시나 예상대로 서양어의 어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malfermi 즉 ‘열다’ 이다. 결코 ‘打’ 라거나 ‘差す’ 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회의를 열다의 ‘열다’ 는 뭐라고 하는가. 아르카에서는 ‘행사를 실행하다’ 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이는 ‘기능을 발휘하다’ 와 같은 어형의 동사로서 범용성이 높다.

화장실을 빌린다(トイレを借りる)고 하는데, 화장실은 빌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용하는 것이다. 반납하지도 않고 갖고 가지도 않으므로 이 빌리다는 빌리다의 본래적인 어의가 아니다. 따라서 아르카에서는 ‘사용하다’ 로 표현한다.

큰 수는 ‘큰’ 것인가? 고칼로리는 ‘높은’ 것인가? 큰 질량은 ‘큰’ 것인가? 바람은 ‘강한’ 것인가? 물의 흐름은 ‘거센’ 것인가?

이들 표현에 사용되는 형용사는 언어마다 재미있을 정도로 엇갈려서 혼란의 불씨가 된다.

이에 관해서 아르카에서는 모두 ‘정도가 심대하다’ 라는 범용성이 높은 형용사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

이 형용사 덕분에 ‘크다’ 나 ‘높다’ 의 비유 어의를 배정하지 않아도 되며 만인이 이해하기 쉽다.

또한 어법은 콜로케이션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술’ 은 어디서 어디까지의 범위를 가리키는가? 영어의 lip 은 일본어의 립보다 범위가 넓다. 당신의 언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찬물’ 과 ‘뜨거운 물’ 은 구별되는가?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찬물과 뜨거운 물은 단어 수준에서 구별되지 않지만 일본어에서는 단어 수준에서 구별된다.

‘쓰다’ 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범위를 가리키는가? 문자라면 쓰겠지만 그림이라면 그리지 않는가. 그림도 쓴다고 하는 언어는 있는가? 또 그림문자라면 쓰다인가 그리다인가? 어디까지가 쓰다의 범위인가? 그런 것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법이란 단어의 사용법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단어의 의미의 범위와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조합되는가라는 조합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인공언어 제작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법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어떤가? 당신은 제대로 이들 문제에 대해 생각해 왔는가? 혼자서 탁상공론으로 언어를 만들기만 해서는 봉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가령 그 언어를 실용했다 하더라도 일본인끼리 내지는 미국인끼리 사용했다면 공통의 어법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좀처럼 이 어법 문제를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아르카처럼 복수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간에서 여러 해 사용해야만 알아챌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물론 본고를 읽은 독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한 실험을 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알아챌 수 있다.

· 어법과 문화

또한 ‘무지개’ 는 몇 색인가와 같은 문제는 어법 절반 문화 절반의 문제이다. 어법의 일종이기는 하나 문화 쪽에 가까운 기술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어법 기술과 문화 기술은 종종 변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표백하고 어법만을 오리지널로 만드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적어도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나는 문화를 표백해야 할 국제보조어에 있어서 자연언어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문화를 표백한다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언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행위이다.

게다가 문화 기술 중 일부가 어법 기술 중 일부와 중복되고, 또 어법 기술에 관해서는 사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연언어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국제보조어 제작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환언하면 국제보조어로는 자연언어 수준의 정교함을 지닌 본격적인 인공언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 최대공약수적 어의에 의한 어법의 표백

인공언어가 어법에 있어서 취해야 할 조치란 어떤 것일까?

먼저 아프리오리든 아포스테리오리든 상관없으니 독자적인 어법을 설정할 것. 에스페란토는 흐름에 맡겨 서양어권의 어법을 획득했으나 그것은 설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어법에 대해서 제대로 제작자가 고찰하지 않은 시점에서 언어 제작으로서는 불충분하다. ‘뭐 언어학 전공도 아닌 안과 의사니까 그 정도겠지’ 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말이다.

아르카는 공통된 어법이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자적인 어법을 설정하게 되었다. 90년대 중반 무렵의 일이다.

처음에는 언어학 지식을 구성원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포스테리오리의 어법이었다.

그러나 아르카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이세계의 예술언어라는 설정으로 변화해 가면서 아프리오리로 어법을 부여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아프리오리든 아포스테리오리든 어법을 표백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어법의 표백은 최대공약수의 어의를 획득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예컨대 일본어에서는 ‘넓다’ 는 면적에 사용하지만 ‘넓은 손’ 이라고는 하지 않고 ‘큰 손’ 이라고 한다. ‘넓다’ 는 단순히 면적의 심대함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장소성의 유무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또 ‘마음이 넓다’ 등의 메타포 어의도 있다. 한편 영어의 large 에는 ‘크다’ 나 ‘넓다’ 의 의미가 있으며 프랑스어의 large 에는 ‘폭넓다’ 등의 의미가 있다. 이들 언어의 단어에 공통되는 어의는 ‘면적의 심대함’ 이며, 그 어의가 ‘넓다’ 나 large 의 최대공약수이다.

복수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간에서 언어를 사용할 경우 최대공약수의 어의를 사용하면 오해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우리는 90 년대 중반의 혼란을 경험하고 최대공약수의 어의를 획득함으로써 사용자들끼리 서로 다른 어법을 표백하여 통일할 수 있음을 알았다. 지식이 아니라 체득,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표현해도 좋았다.

이렇게 하여 지금도 아르카에서 ‘넓다’ 를 의미하는 han 은 원칙적으로 ‘면적의 심대함’ 밖에는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손은 ‘큰’ 것이 아니라 ‘넓은’ 것이고 공원도 ‘넓은’ 것이며 책상도, 그리고 장소성이 없는 종이조차도 ‘넓은’ 것이다.

일본어는 ‘넓은 공원’ 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넓은 종이’ 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는 ‘넓다’ 에 장소성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르카의 han 은 ‘면적의 심대함’ 밖에 나타내지 않기——최대공약수적인 어의밖에 갖지 않기——때문에 ‘넓은 종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최대공약수적인 어의이기 때문에 만인이 다루기 쉽다. 망설임 없이 콜로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특징은 본래 국제보조어인 에스페란토가 가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언어인 아르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본질적으로는 아르카가 더 국제보조어에 알맞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르카의 어법은 에스페란토와 달리 다민족의 청소년들이 진흙탕 속의 풋내나는 인체실험 끝에 구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양어에 편중되었던 에스페란토에 비해 아르카는 일찍부터 어법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서양어에 편중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로 어법이나 콜로케이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만약 내가 국제보조어를 만든다면 어휘는 아포스테리오리로 하고 어법은 최대공약수를 획득하도록 할 것이다.

● 예술언어로서의 어법과 어의의 확장

아르카는 예술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보조어가 가져야 할 표백된 어법, 즉 만인이 다루기 쉬운 어법을 가지고 있다.

이는 90 년대의 아르카가 예술언어가 아니라 표지(標識)언어, 광의의 국제보조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 년 현재는 예술언어이므로 표백된 어법만으로는 문예적으로 밋밋하다. 이에 일부러 메타포 등 인간의 인지 능력을 이용한 비유적인 어의를 단어에 부여해서 어법을 표백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어휘’ 는 일본어에서는 ‘큰’ 것이지만 아르카에서는 ‘높은’ 것이다.

이는 어휘를 단어라는 벽돌을 집적시켜 쌓아올린 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유적인 어의를 ‘높다’ 는 단어에 부여함으로써 탈표백화하고 예술언어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것은 90 년대부터 00 년대 전반에 일어난 어법의 표백에 의해 구성원들이 아르카 특유의 어법을 피부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아르카 특유의 아프리오리 어법을 획득해 버리면 비유 어의를 확장하더라도 사용자는 헛갈리지 않고 아르카의 어법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어법 제작 수순

아르카는 표지언어로서의 광의의 국제보조어가 발단이 되어 예술언어로 안착했다.
그 과정에서 어법도 표백에서 탈표백의 흐름으로 이행했다.

그렇다면 예술언어를 만들 경우 처음부터 탈표백해 두면 되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아프리오리로 어법을 짤 경우 먼저 표백해 두지 않으면 아마도 제작자의
모국어나 습득한 언어의 어법을 그대로 답습해 버릴 우려가 있다.

아포스테리오리라면 그래도 별 상관 없지만 아프리오리라면 생각보다 치명적이다.
이에 일단 표백 작업을 해 놓고 그곳에서부터 최대공약수의 어의에 비유 어의 등의
확장 어의를 추가해 나가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현실

이러한 인공언어의 어법론을 머릿속에 넣어 두고 몸에 익혀 놓은 것은 세상이 넓다
한들 우리 아르카와 그 영향 하에 있는 언어뿐이다.

미국에서 유명한 인공언어 제작자인 마크 로젠펠더는 자신의 언어가 다른 행성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어휘가 아포스테리오리라 지구의 것으로 되어 있다는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초보자라도 바로 편의주의라고 눈치채기 쉬운 어휘에 관해서조차 그는 이런 몰골이니
어법 따위에 생각이 미칠 겨를이 있을 리 없다. 마찬가지로 서구의 다른 논객들도
여기까지 어법에 대해 경험하고 고찰하지는 않았다.

당신은 공교롭게도 전세계에서 가장 앞선, 추측건대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미래의
인공언어계의 상식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이다.

기껏해야 세상의 인공언어가들은 ‘단어가 서양어에 편중되어서는
불공평하니까’ 라면서 아프리오리의 최소한의 어휘 수를 가진 공학언어를 만들거나,
전세계의 다양한 언어로부터 어휘를 도입한 국제보조어를 만들거나 하는 정도의
빈약한 발상밖에는 갖지 않는다.

훨씬 더 시시한 수준에서 말하자면 SVO 라거나 SOV 라거나, 혹은 NA 라거나 AN 이라거나, 그런 어순과 같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피아노 하농 수준의 문제에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다.

내 생각을 말하자면 어휘니 어순이니 하는 수준에서 논쟁하고 있어서는 한참 멀었다. 그 언어를 실용하지 않았고, 심도있게 만들지 않은 것이 뻔히 보인다.

어법이니 콜로케이션이니 하는 세부에 눈이 가게 되면 겨우 인공언어가로서 상류이다. 그런데 서구어나 한중일어나 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없으며 오히려 그 수준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한, 산의 높이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횡행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 그렇게 이 기사를 집필했다. 속내를 터놓자면 국어 교과서에 싣고 싶을 정도로 계몽성이 강한 문서라고 생각한다.

●인공언어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

인공언어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예컨대 사전의 어휘 수와 한 단어마다 들인 시간의 곱. 어휘 수가 적으면 노력이 적고, 한 단어 당 기술량이나 고찰량이 적어도 노력이 적다. 이러한 언어는 저급 양산품에 지나지 않는다.

단어 수만 쓸데없이 많고 한 단어 당 고찰이나 기술이 부족한 언어는 완성도가 모자라다. 완성도는 어휘 수와 한 단어 당 들인 노력의 곱으로 구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휘의 완성도로써 언어의 완성도를 재는 것은 금방 생각해 낼 수 있으나 의외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어법이다.

어법을 제대로 설정했는가. 표백 작업 후에 확장 어의를 추가했는가. 기본어를 몇십 개만 추려서 이 점을 평가하면 그 언어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나아가 그 작업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 언어는 복수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간에서 실용된 실적을 갖는다는 것도 추정할 수 있다.

단 만약 이 기사를 읽은 사람이라면 복수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간에서 실용된 실적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법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 언어가 복수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간에서 실용된 실적이 있는지는 추정할 수 없다.

●신화 속의 어법

여기서부터는 비현실적인 판타지의 이야기이다. 공부는 아니다.

이세계의 신화 속에서 아르카의 어법은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을까?

아래에 어법의 기원에 대해 서술한 문장을 실었다.

아르카는 어법에 중점을 둔 언어이니만큼 신화의 이른 시점에서 이미 어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인공언어에 있어서 어법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신화이므로 에스테 이론이란 판타직한 해석을 들고 나왔다. 신화상에서 지구의 언어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는 주의하기 바란다.

참고로 아래 정도의 문장조차도 번역하지 못하는 인공언어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다.

그렇다기보다 인공언어 중 99%는 아래 문장을 번역하지 못한다. 그만큼의 어휘가 없고 문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어법도 문화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참으로 심각한 사태이다.

-에스테 이론

그들은 어떤 물질이나 개념이 갖는 본래적인 이름을 듣는 능력이 있었다. 엘트는 엘트라라는 이름으로 정해질 운명을 타고난 존재이며, 사알 또한 그렇다. 따라서 그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합당하다고 느꼈다.

이것을 에스테 이론이라 부른다. 에스테 이론에서는 온갖 개념은 고유한 신호를 갖는다. 그 신호는 0과 1의 집적이지만 음성이나 빛의 파장 등으로 규칙적으로 변환할 수 있다.

예컨대 손을 오므려서 주먹을 만든다. 그리고 손목을 포함하지 않고 이 주먹 부분만을 가리키는 개념의 신호를 얻어서 그 신호를 음성변환하면 [baog]와 같이 된다. 정확히는 그 음성은 [baog]는 아니다. 사람이 혀와 구강과 폐를 사용해서 근사적으로 표현한 음성이 [baog]라는 것뿐이다.

엘트와 사알은 자신들의 신체가 표현할 수 있는 온갖 음성을 30개의 음운으로 압축했다. 그 30개의 음운이란 후의 아르카의 음운에 S, Z, H, L을 더한 29음과, 여기에 슈와를 더한 것과 같다.

이 음운을 사용하면 주먹을 나타내는 신호는 /baog/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들은 개념이 발하는 고유한 신호를 음운으로 변화시켜서 어휘를 확장해 나갔다.

그들은 사물뿐만 아니라 개념이나 행위나 상태의 이름도 알고 있었다. 예컨대 사랑한다는 행위는 tiia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상하와 같이 형태가 없는 개념이나 크다와 같이 형태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도 적절한 이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개념의 이름을 그들은 에스테라고 불렀다(명사 이외의 획득).

-어법의 기원

참고로 주먹에 손목을 추가하면 금세 그 개념은 baog에서 동떨어진 신호를 발하게 된다.

사랑한다는 행위도 어법이 변화하면 에스테가 변화해 버린다. 에스테는 작은 일로 변화하기 쉽다.

예컨대 물은 에스테로 eria 라고 하는데, 이것은 0 도의 H2O 를 가리키며 진흙이 들어가거나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기체가 되거나 액체가 되거나 온도가 바뀌거나 하면 에스테가 금세 변해 버린다.

이래서는 엘트와 사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물은 모두 다른 에스테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이러한 언어는 불편하다고 느꼈다.

이에 그들은 eria 의 온도나 다소 섞인 진흙 등의 불순물에 신경쓰지 않고 모두 공통적으로 이것들을 eria 라고 부르기로 했다. 즉 특정한 에스테로 다른 에스테를 대표시키기로 했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모두 eria 라고 부른 것이다.

이때 처음으로 어법의 개념이 탄생했다. eria 는 약간 진흙이 들어간 물과 맹물을 둘 다 가리키며, 찬물과 뜨거운 물도 둘 다 가리킨다. 그러나 와인이나 과즙은 eria 가 아니며 eria 와는 변별된다. 즉 eria 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가리키지 않는가 하는 어법이 탄생한 것이다.

온갖 개념을 에스테로 표현하면 어법은 불필요하지만 단어에 의미의 범위를 부여함으로써 어법이 발생했다.

-eejfedccq

læj fcl enuc len jep ejf lino le fæl ɔ scd illu fcl. elf ef lil le fcl ejf nel elf lino l ɔ) juil. iljon læj nil ejfacf f'ole ef noz cd ejfcl yə cle.

el ɔ fæ ef eejfedccq. lilf eejfedccq, cl scd fcl fel enfi. fæ fel ef lio ɔn 0 ɔ 1. el dcya jen fæ fel ɪ əz ay oen huj zeffel.

pe lio bioφ uol bcl lij. scd nel fæ uicl fclen finl fcl le fel, jee el lcd jen ə nel [bioφ] ɔl dcya fæ fel ɪ ə. lclj, fæ ə ne [bioφ]. fca, ə yaf lio le fcl uejn, læscd, jidb oen ef dya ɪ ə nel [bioφ] ni.

elf ɔ juil uisc l ʔ0 lcd cf cl aeef le nɔje əz jen ɔn dɔcn nɔjfel. fæj ʔ0 lcd ef lcd f'ipli le ləni jcl jefi, əl lcd nel t, z, X, T, ləw ɔ nel jeefuejɔ.

el uolf jen fel l'ej bioφ lel /bioφ/ ɔn fæj lcd. yin ɔn fæj lcd, dcya jecn jɔpɔp cluel uol dcyaen fel enfi le scd illu fcl ɪ le lcd jecn.

